

코로나시대 서귀포 관광패턴 바뀐다

실내관광지 방문 줄고 자연감상·식도락 여행 증가 관광객, 야간관광·축제·힐링 인프라 확충 제언

서귀포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패턴에 확연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실내관광지 방문이 줄어든 반면 자연감상의 비중이 증가했다. 식도락 여행도 눈에 띄게 늘었다.

서귀포시는 3일 '2020년 서귀포시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달 6~16일 서귀포지역 관광안내소 5곳과 소라리성·시민북카페 등 관광지 6곳에서 방문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서귀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최신 여행 트렌드를 파악하고, 서귀포시만의 관광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 문항은 비교분석을 위해 제주자치도가 매년 시행하는 '제주방문관광객 실태 조사'의 일부 항목을 사용해 신뢰도·타당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조사는 남제주군과 서귀포시가 통합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많은 시사점이 도출됐다.

첫째가 관광선호활동의 급변이다. 조사 분석결과 관광객들의 선호활동은 1위가 자연감상(28.8%), 2위는 식도락(22.9%)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제주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에서는 1위가 실내관광지(31.0%), 2위가 자연감상(20.7%)이었다.

둘째는 이동수단의 다양화다. 2019년 조사에서는 렌터카 이용이 86.2%에 달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68.6%로 줄었다. 반면 지난해(3.2%)에 비해 버스 이용(8.9%)은 확연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여성 관광객의 경우 버스 이용이 11.1%로, 남성(6.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숙박시설과 소득의 연관성도 강화되는 경향이 높아졌다. 게스트하우스

스·지인 집에서의 숙박은 가계소득 20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많았다. 호텔·펜션은 1억원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설문 참가자들은 서귀포시 여행만족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야간관광 인프라 확충(25.7%) ▷축제·이벤트 활성화(15.2%) ▷힐링치유 인프라 확충(14.5%)을 제언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관광트렌드 확인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적절한 대응 조치도 중요하다"며 "확보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분석을 통해 필요한 것은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영총기자 yihyeon@ihalla.com

농약 직권등록시험 31작물 추진 도농기원, 농약 부족 해결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약과 등록 농약 수가 적은 소면적 작물을 중심으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31작물·60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도농기원은 2019년부터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모든 농작물에 적용됨에 따라 등록 농약이 없거나 농약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계획 대비 84%인 26작물·50시험·145품목을 추진해 13작물에서 방제효과가 우수한 50품목의 농약을 농촌진흥청 심의를 거쳐 등록했으며, 6작물·11시험·53품목의 농약에 대한 시험을 완료했다.

전국적인 농약 등록 수요조사를 거쳐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공동 직권등록시험으로 양배추 갈록병, 유채 노균병 등 6시험과 제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콜라비 검은색썩음병, 브로콜리 검은무늬병, 금굴에 필요한 농약 등록 등 기관자체 직권등록 5시험이다.

도농기원은 내년에는 5작물 10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농약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되면 등록 농약이 없거나 농약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 31작물에 대한 70품목의 농약 등록으로 농가 애로사항 해결이 기대되고 있다. 오은지기자



두꺼워진 옷차림의 시민들 3일 기온이 뚝 떨어지며 낮 최고기온이 14°C의 쌀쌀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제주시 동문시장을 지나는 시민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400명 육박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256억 연말까지 목표 징수율 96.5%

제주시 지역에서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중인 시민이 4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56억 원이다. 올해 부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157억 원이고, 지난해도 체납액이 99억 원이다. 세부별로는 재산세가 79억 원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74억 원 ▷자동차세 34억 원 ▷취득세 30억 원 ▷기타 39억 원 등이다.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시민은 현재 392명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11~12월 두달을 '2020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으로 정해 징수율 96.5%(체납률 3.5%)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이전 체납률은 ▷2016년 2.9% ▷2017년 2.7% ▷2018년 3.2% ▷2019년 3.7%였다.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을 통해 고액 상습체납자는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신용카드 매출채권·환급금·급여 등 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지 등의 체납처분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경우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해 집중 관리하며, 지방세를 3회 이상·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관하여 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제주시소통협력센터 (1) 가정 밖 청소년·청년 자립지원 사업



피자굽는 돌하르방 대표 창업인 멘토(왼쪽)와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백희봉 센터장.

"우리 사회 일원으로 성장·정착 도울 것"

가정밖 청소년·청년 지원 넘어 자립역량 강화 프로세스 구축

제주시소통협력센터(센터장 민복기)와 청도시락점넷(대표 김은영)·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제주시여자단체청소년쉼터·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가 함께 '가정밖 청소년·청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지원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자립 역량강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가정 밖 청소년·청년 자립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와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지난달 28일 가정 밖 청소년 5명은 가정 밖 청소년·청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 위치한 '피자굽는 돌하르방'을 찾았다.

청소년들은 이날 피자과 빵을 굽는 교육에 이어, 커피 이론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커피를 내리는 체험을 했다. 피자굽는 돌하르방 대표 창업인 멘토는 단순한 직무 교육과 경험 제공자 역할 뿐 아니라, 일을 대하는 태도와 정서적 교육까지 진행하며 자립 역량을 위한 맞춤형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장 대표는 "요식업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 경험"이라며 "많은 경험이 창업 실패 확률을 낮추는 방법이고 요식업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청년들은 반드시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도 철저하게 현장 경험에 치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김모양은 "수업이라고 해서 분위기가 딱딱하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멘토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곁들여져 좋았다"며 나중에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글 쓰는 작가가 돼 좋아 하는 커피를 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청소년들이 모두 요식업에 진로를 꿈꾸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호텔 레스토랑에 취업을 원하거나 카페 창업 이외에도 패션 디자이너, 래퍼 등 아직 정해지지 않은 꿈을 향해 달리는 중이다.

제주시소통협력센터 민복기 센터장은 "이번 생활실험 프로젝트는 소외됐던 가정 밖 청소년·청년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고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됐다"며 "이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제주의 청소년·청년의 진로 및 자립과 관련, 다양한 입장을 견지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더 나아가 확산 가능한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복기 센터장은 이어 "지역내 다양한 이슈 중 시의성과 확장성을 고려해 가정 밖 청소년·청년 자립지원과 건강한 먹거리 기반 커뮤니티 돌봄, 공유이동수단을 활용한 대안이동 실험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생활실험 프로젝트(리빙랩)로 선정을 했는데 이달 중순까지 각 주제별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기관과 협력해 장기적으로 확산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까지 고려한 자립지원 마련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향후 가정 밖 청소년들의 지원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청소년 대상 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창의인재육성교육

교통안전 프로듀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일시
2020년 11월 7일~12월26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총 8차시)

장소
상명정남문화공간 (제주시 상항로 4)

대상
초등 4, 5, 6 학년 선착순 10명

접수기간
2020년 11월 2일(월) ~ 11월 6일(금)

문의 및 접수
이전화 010-4369-3011

주관 : 제주NIE학회

후원 : 제주도청 자치경제과

제주NIE학회

※ NIE란 News In Education의 약자로 뉴스를 활용해 읽기와 쓰기,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제주NIE학회는 신문활용을 위한 연구 활동과 뉴스, 영상, 광고, 리터러시 등의 미디어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제주60+교육센터 | 교육생 모집 (제주어이야기할머니 양성과정)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무료 취업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의 전문성을 갖추고자 제주어이야기할머니 양성과정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구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횟수	모집인원
취업형	제주어 이야기할머니	11월 ~ 12월	총 10회	15명

* 출석 80%이상 수료
* 모집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60세 이상 건강한 분
【신청기간】 2020. 11. 4.(수) ~ 2020. 11. 11.(수)
【신청장소】 직접방문접수 / 사단법인느영나영복지공동체 (제주시 용담로 128, 2층)
【상담전화】 742-0606

제주60+교육센터 | 는 기업 맞춤형인력 양성 및 60+의 다양한 사회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에서 운영합니다.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

제주60+교육센터 | 교육생 모집 (교통안전 정보지도사양성과정)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무료 취업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의 전문성을 갖추고자 교통안전 정보지도사양성과정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구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횟수	모집인원
취업형	교통안전 정보지도사	11월 중	총 2회	30명

* 출석 80%이상 수료
* 모집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60세 이상 건강한 분
【신청기간】 2020. 11. 4.(수) ~ 2020. 11. 11.(수)
【신청장소】 직접방문접수 / 사단법인느영나영복지공동체 (제주시 용담로 128, 2층)
【상담전화】 742-0606

제주60+교육센터 | 는 기업 맞춤형인력 양성 및 60+의 다양한 사회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에서 운영합니다.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

당일생산! 당일발송!

동영 청정바다 생굴

믿을 수 있는 동영굴수협 정식등록 지정중도매인23번!

도매업인데 비싸서 되겠습니까?
더 이상 비싸게 사지 마세요!

품질 좋은 최상급 생굴을 부대비용을 줄여 저렴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신있습니다! 가격 부담을 낮춰 드리겠습니다.

최상급 생굴 5kg 小 中 大
최상급 생굴 10kg 小 中 大

생굴을 먹을 수 있는 철이다! 굴~ 하면 동영이다!
겨울철 바다의 싱싱함을 그대로 집에서 맛볼 수 있는 산지직송 동영굴이 택배로 배송됩니다!

주소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49-1 청정수산
계좌 : 수협 776-62-037473 이선곤

주문 전화 010-2110-8506 / 010-3551-2352

당일 시세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부담없이 가격 문의주세요